

2025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메시지 1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함

성경: 빌 1:19-21

- I.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밝혀 준다 — 빌 3:10, 1:19-21 상, 4:12-13.**
- A. 1 장 20 절과 21 절에 따르면 넘치는 공급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B.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구원이다.
 - C.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고 그분을 확대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매일 구원받아야 한다.
- II. 빌립보서의 주제와 지배적 개념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 빌 3:7-10, 4:13.**
- A.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열어주는 만능열쇠이다.
 - B.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몸의 문제이다 — 빌 1:19, 2:1-2, 4:2-3, 10, 14-20.
 - 1. 몸 안에 있고 몸에 속한 것은 모두 상호 교통을 포함한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이러한 상호성이 필요하다 — 빌 2:1-2, 고전 12:25.
 - 2.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반드시 몸 안에 있어야 하고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만 그분을 완전히 체험할 수 있다 — 엡 4:16, 롬 12:5.
- III.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관한 책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관한 책임이다 — 빌 1:19-21 상.**
- A. 성경의 기본 사상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을 살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이다 — 엡 3:16-17 상.
 - B.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과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이다 — 롬 4:1-3, 12, 16, 골 1:24, 2:19.
 - 1.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일부로서 그분의 인간 미덕들 안에서 표현된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로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이다 — 롬 12:5, 고전 12:14.
 - 2. 몸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우주적인 완결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사는 것이다 — 엡 3:8-11.
 - C.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윤리나 종교나 문화에 속한 삶이 아니고 심지어 도덕에 속한 삶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이다 — 골 3:4.
 - 1.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로서 우리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인 삶을 살아야 한다 — 요 6:57.
 - 2.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정상적인 체험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 엡 4:20, 골 2:2-3, 8, 빌 1:21 상.
 - D.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었다 — 빌 1:21 상, 갈 2:20.
 - 1. 그리스도는 바울 안에서 그의 생명이 되어 사셨고, 바울은 그분의 삶이 되어 밖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냈다. 바울과 그리스도는 한 생명과 한 생활을 가진 한 인격으로서 함께 살았다.
 - 2.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산다. 두 생명이 한 생활을 하고, 두 본성이 연합되어 한 본성이 되고, 두 영이 한 영이 된다 — 요 6:57, 고전 6:17.
 - E. 그리스도를 살려면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 머물러야 한다 — 빌 1:8.

1.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부분들을 체험했다. 그는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속부분들과 하나였다.
 2.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내적 존재 안에 있는 생명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살았다.
 3.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속부분들 안에, 곧 그분의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 안에 있어야 한다 — 요 15:4 상.
 4.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분의 속부분들 안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은혜이신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 빌 1:7, 4:23.
- F.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살기 위한 것이었다 — 빌 1:19.
1.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넘치는 공급은 신성과 인성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과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 미덕들을 포함한다 — 행 16:7, 롬 8:9.
 2. 빌립보서 1 장 19 절에서 바울이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을 말하기 전에 몸의 공급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그 영께서 몸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 a. 몸의 한 지체로서 바울은 자신에게 몸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 고전 12:12, 14-22.
 - b. 바울은 자신이 몸 안에 있고 몸의 지체들이 그를 지지하며 몸을 통해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이 그에게 온다는 것을 속에서 분명하게 감지했다.
 3. 바울이 이기는 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 안에 거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과 그분의 넘치는 공급을 체험하고 누렸기 때문이다 — 롬 8:37.
- IV.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분을 확대한다면, 우리는 성도들이 생명 안에 자라 주님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요인들, 곧 공급의 통로들이 될 것이다 — 빌 1:20-26.
- A.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쓸 때, 감옥에서 살면서 겉으로는 일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가 언급한 '나의 일에 열매'는 그의 일이 사실상 그의 생활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 빌 1:22, 4:22, 엡 6:20.
- B. 바울로 인해 교회들은 생명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채워질 수 있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 — 빌 1:25.
1. 바울은 그리스도를 극도로 살고 확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성도들 안으로 옮겨 붓고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었다.
 2. 바울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지, 육체 안에 남아 있을지를 고려한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주님과 교회로 철저히 점유되어 있었다.
 - a. 우리가 육체에 머무는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지는 교회에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의 깊은 데서부터 성도들의 존재의 깊은 데로 옮겨 붓는 데 달려 있다 — 비교 빌 2:25-30.
 - b. 몸의 생활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공급의 통로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 숙 4:12-14, 삿 9:9.